

2025

대한결핵협회

기부금 사업보고서



2024년도 기부금사업보고서

“결핵 없는 세상, 함께 만드는 건강한 숨결”

한국전쟁 직후, 당시 인구의 6.5%인 약 130만 명이 결핵 환자였던 시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항결핵 단체인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며 어둡기만 했던 결핵의 그림자 속에도 희망의 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결핵 환자 수는 점차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2위, 사망률 5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결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핵은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여전히 노숙인, 65세 이상 어르신, 외국인 근로자 등 결핵에 더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이 존재합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이분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를 미리 방지하고, 결핵이란 병뿐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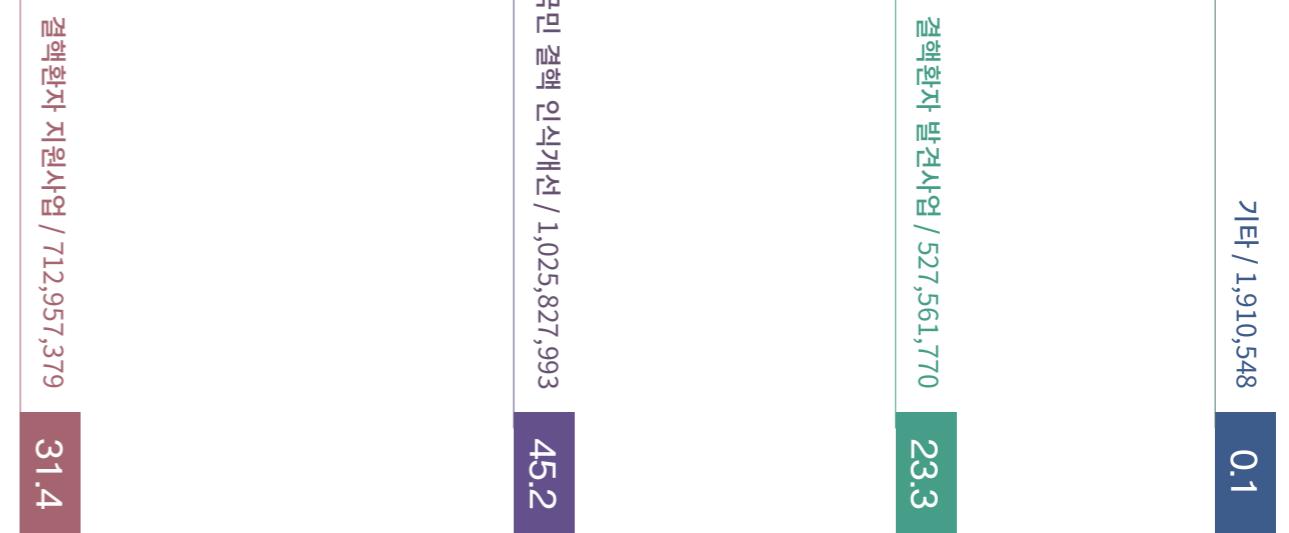
결핵 환자의 완치를 응원하는 복약 지원,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 검진, 면역력 증진을 위한 생필품 지원, 청소년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완치 독려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이 든든한 보루는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창립 이래 지금까지 국내 결핵 퇴치의 중심에서 쉼 없이 달려왔고, 오늘날에는 세계 결핵 고위험국에 선진화된 검진기술을 전수하며 국제사회로 그 발걸음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협회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결핵 없는 세상이라는 하나 된 바람으로 함께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대한결핵협회는 수많은 후원자 여러분들과 함께 국내외 결핵 퇴치의 최전선에서 정성 어린 마음이 담긴 결핵 퇴치기금을 더욱 소중히 사용하고, 모두가 건강한 숨을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결핵협회 임직원 일동

2,268,257,690



2024년
모금액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마련된 결핵퇴치 기금은 국내외 호흡기 감염병 및 결핵사업 수행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1. 결핵환자 지원사업

구분	사업구분	사용액(원)	비고
1	국내외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	586,012,883	
2	시니어 결핵환자 복약지원사업	32,330,556	
3	LungTreeCare Campaign	28,800,000	
4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16,500,000	
5	이주민 결핵환자 쉼터 운영	13,200,000	
6	온라인 모금 지원사업	16,114,540	
7	결핵 연구자 지원사업	19,999,400	
	합계	712,957,379	

2. 대국민 결핵 인식개선

구분	사업구분	사용액(원)	비고
1	결핵 대국민 홍보사업	952,175,175	
2	크리스마스 쌀 모금사업	73,652,818	
	합계	1,025,827,993	

3. 결핵환자 발견사업

구분	사업구분	사용액(원)	비고
1	결핵환자 발견사업	321,404,830	
2	결핵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206,156,940	
	합계	527,561,770	

4. 기타

구분	사업구분	사용액(원)	비고
1	모금비	1,910,548	
	합계	1,910,548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마련된 결핵퇴치 기금은 국내외 호흡기 감염병 및 결핵사업 수행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사업명

시니어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한 복약지원사업

사업소개

노인 결핵환자 복약지원 사업

- 대한결핵협회는 결핵 치료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 취약계층(독거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비순응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복약확인 및 복약지원을 통해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4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역밀착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경기, 전북, 부산 등 신설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역사회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약률이 월 80% 이상일 경우, 식료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며, 원격 화상 시스템을 통한 복약 확인은 물론,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진료 예약 안내·동행,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체계도



사업안내

환자 발굴 및
신청 안내



대상자 선정

자택 방문 및
생활환경 조사



복약확인

원격화상
복약 확인기기 설치



식료품·생필품 지원

규칙적인
복약 독려



치료 성공

비순응환자는 자택
방문 및 복약 독려

사업성과

성과지표	사업목표	사업성과	달성을(%)	비고
목표인원	140명	110명	78.6	
치료성공률	85%	90.8%	106.9	
복약확인순응도	85%	96.7%	113.7	

- 본 사업은 전국에 거주하는 시니어 결핵환자 중 취약계층의 복약을 화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목표 인원 140명 중 110명(78.6%) 지원
- 사업 결과 2024년 복약관리 신환자는 110명이며, 완치·완료 45명, 중단 6명, 사망 4명, 전원 13명, 진단변경 1명, 치료중 41명
- 대상자 복약순응도 96.7%(치료중 41명 / 2024년 말 기준)

※ 치료성공률 : 퇴록결과 완치, 완료자 / 퇴록환자 수 (단, 전출자, 진단변경 환자 제외)

※ 복약순응도 : 복약순응일 / 유선 복약확인일

※ 본 사업은 크리스마스 쌀 모금액으로 수행합니다. 단, 본부는 KB 국민은행 지정기탁 기부금을 재원으로 수행됩니다.

인터뷰

복약확인 지원사업 대상자 인터뷰

“**안부를 묻고, 찾아와 주시고, 약 복용을 도와주신 그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 청력을 완전히 잃어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결핵 진단을 받았을 때는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보건소를 통해 대한결핵협회의 복약지원사업을 소개받게 되었고, 희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로 소통도 어렵고 말도 들리지 않는 저를 위해,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수화 통역 선생님을 연결해 주셨고, 복약관리 담당 선생님과 수화 통역 선생님이 함께 방문해 복약을 도와주셨습니다.

매월 지원되는 생필품과 식료품 역시 두 분의 도움으로 주문하고 받을 수 있었기에,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꾸준한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비록 수화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만,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까 봐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돌봄과 지원이 저와 같은 어려운 이들에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결핵환자 복약관리사업 대상자/75세, 황○○>



인터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매년 결핵 환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시니어 환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향후 일정 기간 시니어 결핵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약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대부분 독거 어르신이나 차상위계층으로, 우리가 돌봐야 할 분들은 여전히 많고, 어느 곳에선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결핵치료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며, 우리는 언제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간의 결핵 치료 기간 동안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는, 누군가가 찾아와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정서적 안정과 희망이 됩니다. 때로는 자녀보다, 이웃보다 더 가까운 존재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며, 복약을 모두 마치는 날 눈물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작은 행복과 희망이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앞으로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하게 돌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결핵 완치 국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결핵환자 복약관리사업 담당자 사회복지사 장래환>



사업명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사업소개

-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결핵 환자 학생들에게 독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결핵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 결핵 치료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복약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학생과 그 가정이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결핵협회는 결핵 환자 학생들에게 소정의 결핵 완치 독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결핵 환자 학생들이 치료를 완주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또한, 학교 내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 결핵 발병률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결핵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이 사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소중한 노력입니다.

5개년 사업성과

구분	(단위 : 명,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자	35	46	36	22	28
지원액	20,500	27,500	23,500	14,500	16,500

※ '2013년 사업시작 이후 지원자 합계 1,587명, 지원액 합계 1,287,500,000원'

2024년 지원내역

합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외		다약제·광범위약제	
지원자	지원액	지원자	지원액	지원자	지원액	지원자	지원액
28	16,500	3	3,000	23	11,500	2	2,000

※ 학생 결핵환자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결핵완치 독려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가 또래보다 많이 피곤해하고, 자주 기침을 했어요. 처음엔 감기려니 했는데,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결핵이 아직도 있어?’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잠복결핵도 아닌, 활동성 결핵이라는 얘기에 아이도 저도 겁에 질렸고, 주변 시선도 두려웠어요. 매일, 여러 알의 약을 힘겹게 삼키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보건소 선생님을 통해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어요.

병을 이겨내기도 쉽지 않은데, 생활까지 더 힘겨워지는 상황에서 협회에서 보내주신 응원은 저희 가족에게 정말 큰 위로였어요. 그 덕분에 아이는 학교를 천천히 복귀하며 예전처럼 친구들과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저희 가족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 곁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대한결핵협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박○○ 학부모>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사업명

결핵환자 및 보건인력 지원을 위한 LungTreeCare Campaign

사업소개

결핵환자 및 보건인력 지원을 위한 LungTreeCare Campaign

· 결핵 퇴치를 위한 STOP-TB 캠페인 활동

결핵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입니다. STOP-TB 캠페인은 결핵의 위험성과 퇴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예방 수칙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 결핵병원 입원 환우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와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위한 격려 행사는 결핵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2024년 힐링 콘서트에서는 기초화장 서비스, '나만의 사진' 촬영, 캐리커처 드로잉, 머그컵 만들기, VR 체험 등 환우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을 위한 강연으로 방송 · 시나리오 작가 남인숙은 초청해 '관계의 기술'을 주제로 한 자기계발 강의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STOP-TB는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환우와 보건인력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담당자 소감

· 결핵 예방 캠페인은 결핵의 확산을 막고,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돋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진행하는 "LungTreeCare Campaign"은 결핵 환자들에게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돋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핵 치료는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인 어려움도 동반되기에, 환우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작은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힐링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환우들이 잠시나마 웃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서 묵묵히 결핵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하고 계신 결핵관리전담간호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결핵 퇴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국민 건강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STOP-TB Partnership 한국사무국 정수현 사원

사업성과

구분	사업목표	사업성과	달성을률	비고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격려행사 및 물품지원	1회	1회	100%	
장기입원 환우를 위한 힐링콘서트	2회	2회	100%	
결핵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1식	1식	100%	



사업명

온라인 모금 지원사업 / 폐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철호씨를 도와주세요

사업소개

“낯선 땅에서 꿈꾸던 일상, 여러분이 지켜주셨습니다.”

· 중국 국적의 철호씨는 사랑하는 아내, 어린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결핵이라는 뜻밖의 시련이 찾아왔고, 뒤이어 폐암이라는 큰 병마가 다시금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철호 씨는 결핵을 이겨냈던 강한 의지로, 다시 한번 삶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 덕분에,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모금은 목표 금액인 9,900,000원을 성공적으로 달성 하였고, 추가 모금을 더 해 총 10,118,200원의 후원금이 철호 씨에게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한 가족의 삶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 갑작스러운 폐암 진단으로 생계를 잃고, 어린 자녀와 아내를 바라보며 절망했던 철호씨에게 여러분의 응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치료비와 생계비로 사용되어, 철호 씨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저희 가족을 위해 마음을 내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안고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철호 씨의 감사 인사 중에서-

여러분의 손길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 작은 관심이 한 가족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앞으로도 철호씨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픔을 이겨내는 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희망술결 프로젝트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 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업명2

온라인 모금 지원사업 / 전기료 지원과 카네이션 나눔

사업소개

“당신의 따뜻한 마음, 두 번의 봄이 되었습니다.”

· 해피빈과 함께한 “희망술결” 이야기

하얗게 얼어붙은 겨울,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방안은 한기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 한 통의 전화도 없이 흘러가던 날들 속에, 우리는 조심스레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난방비 지원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단지 연료 한 통을 채우는 것을 넘어 마음을 녹이는 온기로 이어졌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결핵환자 어르신들께 난방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었고,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오랜만이에요”라는 말씀에, 저희는 오히려 더 깊이 위로받았습니다. 추위는 어느덧 지나갔지만, 그 따뜻함은 아직도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봄으로 바뀌고, 사랑과 감사가 피어나는 가정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카네이션 나눔’ 캠페인을 통해 결핵 치료 중인 독거 어르신들과 노숙인 결핵환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한 송이 카네이션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말없이 손을 꼭 잡으시며 눈시울을 붉히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단함이 전해져왔습니다. 이 작은 꽃 한 송이가, 누군가에겐 한 해를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혼자 보내는 봄이 외롭지 않도록, 결핵 치료의 긴 여정에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러분의 사랑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 누군가의 관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나눈 온기, 함께 피운 봄.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고, 작은 꽃 한 송이가 삶을 위로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두 번의 계절이 따뜻해졌고, 그 따뜻함은 수많은 마음에 잊히지 않는 봄이 되어 피어났습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 곁에 가장 먼저 다가가 따뜻한 숨결을 전하는 희망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희망술결 프로젝트, 당신과 함께라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 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모인 소중한 기부금은 전기료 지원과 카네이션 바구니에 담겨 취약계층 결핵환자 어르신들에게 작은 온기를 담아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뷰

카네이션과 함께 전한 따뜻한 온기, 잊지 않을 사랑의 순간

· 2024년 대한결핵협회 어버이날 행사

해마다 찾아오는 어버이날이지만, 자녀와 떨어져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날일 수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올해도 취약계층 결핵환자 중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정성스러운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그리고 가족과의 거리를 안고 긴 기다림 속에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우리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입니다”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선물보다 더 깊이 마음을 울렸던 순간은, 어르신과 눈을 맞추며 나눈 인사, 그리고 “잊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는 담담한 한마디였습니다. 이날 만큼은 어르신들이 단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존경하고 기억해야 할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결핵협회는 단지 복지기관이 아닌, 이웃의 마음과 가족의 사랑으로 어르신 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024년 5월, 사랑이 머물렀던 그 날의 봄을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사회복지사 김길분>



* 본 사업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모금액과 대한결핵협회 재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명

취약계층 및 이주민 결핵환자 치료지원 쉼터 운영

사업소개

취약계층 및 이주민 결핵환자 치료지원 쉼터 사업 종료

대한결핵협회는 결핵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과 이주민 결핵환자들을 위해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운 사례를 발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결핵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쉼터에서는 주거 지원뿐 아니라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약물 복용 관리, 그리고 완치 후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자활 프로그램 등 사회 복귀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병행해왔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한결핵협회가 예산을 지원하고, 구세군 소속 간사들이 현장 운영을 맡아 현신적으로 관리해왔으며, 결핵 환우들에게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의 변화와 운영 환경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본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동안 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신 분들과 이 사업의 가치를 믿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쉼터는 문을 닫게 되었지만, 대한결핵협회는 여전히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 꾸준한 치료, 그리고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나가며, 이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넓혀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결핵 퇴치를 위한 여정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성과

쉼터 이용 현황(2017년 ~ 2024년 3월)

구분	입소자	완치	치료 중단	본국 송환	사망
인원	24명	21명	1명	1명	1명

쉼터를 이용한 결핵환자의 국적은 국내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러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쉼터, 그 여름의 시작과 마지막

2017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많은 이들이 더위를 피해 떠난 한산한 도심 한가운데서, 우리는 결핵 환우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핵에 대한 편견 속에서 주택가의 평범한 집을 쉼터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남성과 여성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 가전과 집기를 손수 나르며 어느덧 여름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쉼터에는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다 결핵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돌아갈 수도 머물 곳도 없는 내국인들. 그들의 아픔과 막막함 속에 쉼터는 작은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완치 후 조용히 자신의 일터로 돌아간 OO 씨, 늘 방 안에만 머물며 걱정을 안겨주던 그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은, 어떤 말보다 큰 보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건넨 마지막 차비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꼭 연락할게요.” 쉼터를 떠나는 이들의 인사는 늘 같았지만, 이후 소식이 들려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저 ‘어디서든 건강하길, 더는 아프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완치가 다가올 즈음, 환자들이 느끼는 묘한 공허함과 두려움. 우리는 그 이유를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 그들은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쉼터에서 함께한 시간 동안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6년. 쉼터를 ‘내 집처럼’ 드나들며 복약을 쟁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이들을 돌보았던 시간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쉼터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입원 치료 환자가 줄어든 현실 속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새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우리가 손수 꾸린 공간과 이별을 맞았습니다. 본부장님과 직원들이 전해준 감사패, 그리고 그 순간 밀려온 감정. 오래된 친구와 이별하듯, 그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없이 훌린 땀, 고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쉼터는 사라졌지만, 그 공간이 담아냈던 수많은 사연과 만남은 마음 깊은 곳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이라는 질병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완치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지만, 결핵이 완전히 정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구세군 보건사업부 오창희 간사>



사업명

아시아 결핵 미래 연구자 지원사업

사업소개

· 결핵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결핵협회는 2020년부터 “아시아 결핵 미래 연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씨젠의료재단의 지정 기탁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내 젊고 유능한 결핵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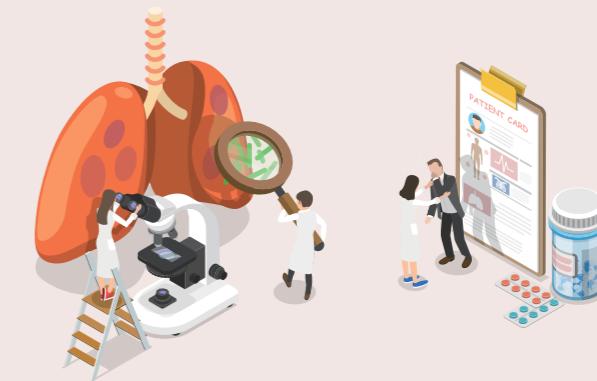
· 결핵은 단일 감염병으로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탐구와 과학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아시아의 미래 연구자들이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돋고 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결핵 정복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체계도



사업성과

구분	사업목표	사업성과	달성을
아시아 결핵 미래 연구자상	1명 시상	1명 시상(곽낙원 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임상부 교수)	100%



인터뷰

2024년 아시아 결핵 미래 연구자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신 대한결핵협회와 STOP-TB 파트너십 한국사무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신 임재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밑고 따라와 주시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최근 결핵 발병 건수는 여러 기관과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이전보다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핵 치료와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환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며, 더 나은 치료 환경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배우고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임상부 곽낙원 교수>



공동수상자 중국 CDC Dr Tao Li



사업명

결핵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사업소개

대한결핵협회 홍보사업은 결핵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돋고, 예방활동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상시 운영되는 SNS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 소식지 '보건세계'를 격월간 발행하여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 '거꾸로 하트 그림 공모전' 등을 통해 미래 세대와 함께 결핵퇴치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보다 많은 국민에게 결핵 퇴치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대한결핵협회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대상을 세분화하고, 전달 메시지와 매체 형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격월간지 보건세계 발행

결핵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질병정보 및 협회 현황을 소개하는 격월간 간행물 제작



SNS 홍보채널 운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감염병 정보 플랫폼 운영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결핵 및 협회 사업 소개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



거꾸로하트 그림공모전

결핵·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한 초등학생 대상 그림공모전



크리스마스 쌀 모금 캠페인

팝업 기부스토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통합 모금 캠페인 전개



결핵예방 콘텐츠 제작

잡복결핵감염 검사, 결핵 검진 등 대상과 주제에 따른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결핵예방의 날 캠페인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전후하여 협회 본부 및 12개 지부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현장 캠페인 전개



언론홍보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협회 사업 현황 및 결핵·호흡기 감염병 이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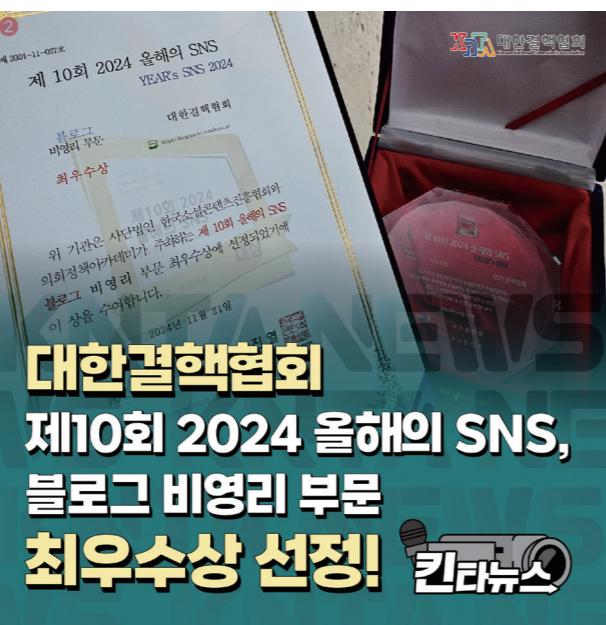
사업수행

결핵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결핵은 옛날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1,300여 명이 결핵으로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를 제외하면 사망자가 가장 많은 법정 감염병입니다.

결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감염병이며, 예방과 퇴치를 위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홍보기획팀은 결핵과 호흡기 감염병의 위험성을 알리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퇴치 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캠페인과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결핵 퇴치에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이야기하고 설득합니다.



1. 홍보물
2. 대한결핵협회 SNS 최우수상 선정
3. 보건세계
4. 거꾸로하트 그림 공모전
- 5, 6. 크리스마스 쌀 모금 부스

사업명

크리스마스 쌀 모금사업

사업내용

· 크리스마스 쌀은 1904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작은 마을에서 한 우체국장이었던 아이날 훌벨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 편지에 소액의 쌀을 붙여 결핵환자를 돋자는 그의 제안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온기는 세계로 퍼져 나가며 결핵퇴치의 상징적인 모금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캐나다인 선교사 셔우드 훌이 처음 크리스마스 쌀을 발행하며 결핵과 싸우는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후 1953년 대한결핵협회의 창립과 함께 매년 크리스마스 쌀을 발행하며, 국민과 함께 결핵퇴치기금 모금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모인 이 소중한 기금은 결핵환자의 발견과 치료, 취약계층 지원, 조사연구 등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전 분야에 걸쳐 누군가의 숨결을 지키는 희망의 실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방법

·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가 2024년도 크리스마스 쌀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통통 튀고 개성 넘치는 브레드이발소 캐릭터들이 즐겁고 유쾌한 일상을 담은 크리스마스 쌀로 변신해 결핵퇴치를 위한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국 학교에서는 사전신청을 통해 모금 캠페인에 참여했고, 각 지역의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도 쌀 모금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쌀 기부스토어를 비롯해 전국 200여 개 우체국과 이마트24, GS25 편의점을 통해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모금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크리스마스 쌀 모금 외에도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타 기부금 모금 활동을 병행하여 결핵퇴치기금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 크리스마스 쌀 모금액 : **1,450,567,769원**
(2024.01.01. ~ 2024.12.31.)

구분	모금목표(원)	모금액(원)	목표 대비(%)
계	3,000,000,000	1,450,567,769	48.4
크리스마스 쌀	1,500,000,000	534,036,017	35.6
그린 쌀	1,500,000,000	916,531,752	61.1

· 기타 기부금 모금실적 : **267,235,449원**
(목표액 3억원의 89.1%)

단위 : 원, %

구분	모금목표(원)	모금액(원)	실적(%)	비고
계	3,000,000,000	267,235,449	89.1	
기업체 기부	200,000,000	168,000,000	84.0	* 기업체 지정기탁 등
개인 기부	80,000,000	62,251,217	77.8	* 정기 및 일시후원 등
이벤트 모금 등	20,000,000	11,107,800	55.5	* 온·오프라인 모금함 등
기타	-	25,876,432	-	* 쉼터사업 반납금, 이자 등

▶ 인터뷰

‘결핵 없는 세상,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 하나로 시작됩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전 세계 결핵퇴치운동의 상징인 크리스마스 쌀을 통해 결핵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몽운동을 펼치며, 국민 여러분께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쌀 모금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대표적인 감염병 퇴치 모금 운동입니다. 오늘날에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기부스토어’를 통해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쌀을 만날 수 있으며, 기부의 증표로 다양한 굿즈와 함께 나눔의 기쁨도 전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자들은 병과 외로움 속에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그분들에게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큰 희망이 됩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삶의 의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온기가 모여 결핵 없는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대한결핵협회 모금개발팀 남욱현 팀장>



사업명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사업

사업소개

· 자체의 엑스선 검진 혜택이 미치기 어려운 결핵 고위험 집단(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과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는 이동 엑스선 차량을 활용한 현장 검진을 통해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결핵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 차량 및 휴대용 엑스선 장비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방법

사업성과

구분	사업목표	사업성과	달성을	비고
취약계층검진	52,310건	54,405건	104.0%	

▶ 인터뷰

‘건강한 숨을 위한 약속, 현장에서 지켜갑니다.’

본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흥부 엑스선 검진을 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엑스선 검진뿐만 아니라 안저검사 등 다양한 건강 검진 항목을 도입하여 검진 효과를 더욱 높이고, 보다 통합적인 건강지원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결핵 확산을 막고, 누구나 건강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결핵협회 사업개발본부 검진사업팀 김성진 대리>



사업명

결핵 교육훈련 사업

사업소개

· 대한결핵협회 교육사업팀은 결핵 예방과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질병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 의료인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강화는 결핵 퇴치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팀은 결핵진료의사,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전담간호사,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 의료인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대상자의 직무 이해와 현장 적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며,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소하고 학습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결핵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신 정보와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교육 종료 후에는 참여자 평가를 시행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사업팀은 결핵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결핵 퇴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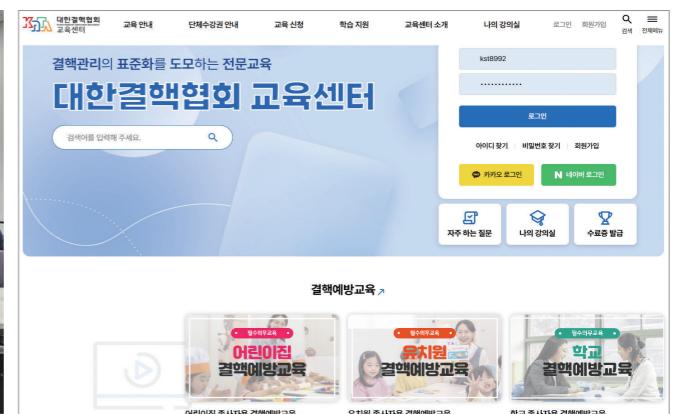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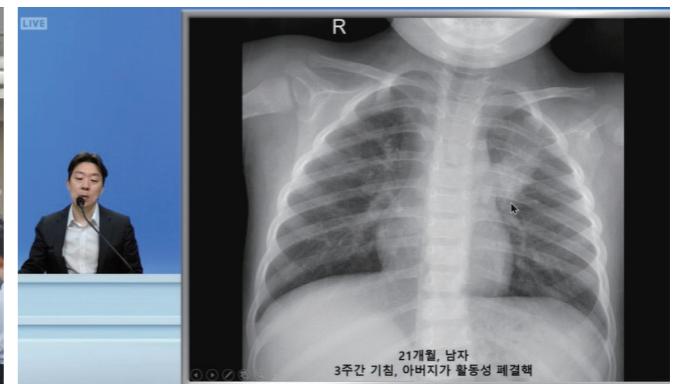
사업성과

구분	교육명	사업목표	사업성과	달성을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기본교육	1건	1건	100%
	민간위탁사업 결핵관리 연합교육	6회	5회	83%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관리 교육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진단 및 치료 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	1회	1회	100%
	결핵 온라인 상시교육	1회	1회	100%
	결핵상담실 운영	4,000회	5,813회	145%
	표준상담사례집 개정 및 배포	1식	1식	100%
	결핵관리교육	300명	211명	70%
	결핵관리 보수교육	200명	332명	166%
결핵관리 담당 인력 교육	투베르클린 피부검사 교육	60명	60명	100%
	웹심포지엄	200명	349명	175%
	결핵예방교육	200,000명	127,228명	64%
	내부직원 직무교육	2회	2회	100%

인터뷰

결핵 교육을 기획·운영하면서, 결핵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교육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기존의 지식을 보완하고 최신 치료법과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학습하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 혼합형 방식, 실습 중심의 실무 교육, 그리고 LMS(학습관리시스템) 기반의 온라인 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한 결과, 교육생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교육사업팀의 중요한 성과이자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결핵 진단과 치료를 책임지는 현장 의료진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교육사업팀의 핵심 역할이며, 이를 위해 최신 연구와 임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결핵 퇴치와 국민 건강 증진의 실질적 기반이 됩니다. 교육사업팀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결핵관리 의료인의 전문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협력원 교육사업팀 윤이진 주임>



사업명

결핵 조사연구

사업소개

·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의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핵 치료제 및 진단시약 개발, 제조합 BCG 백신 플랫폼 구축, 코로나 19 및 기타 호흡기 감염병 대응 등 국내외 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학술연구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결핵 관리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 연구과제도 병행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결핵의 조기 탐지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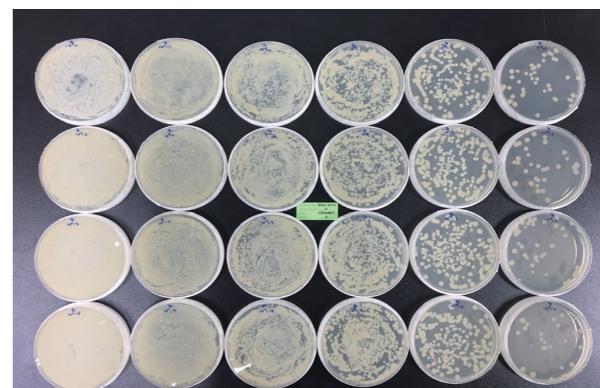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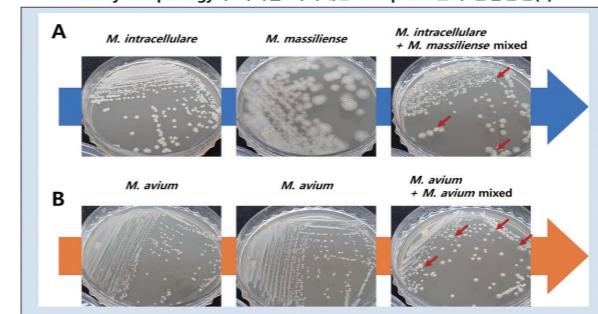
※ 해당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국내 결핵 정책 수립과 치료 지침 개선에 적극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구분	사업목표	사업성과	달성을률
결핵조사 연구과제	10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치료제 후보물질 탐색2. 신규 감염병 즉시 대응을 위한 재조합 BCG백신 플랫폼 구축3. 희귀 천연물 유래 항결핵 치료제 후보물질 탐색4. 마이코박테리오파지 유래 단백질의 응균활성 분석5. 비결핵 항산균 다기관 코호트 임상균주의 전장유전체 DB구축 및 신규 바이오마터 발굴 개발6. 잠복 결핵 검사 잔여 검체를 활용한 활동성 결핵 조기진단 바이오마터 개발7. 최근 10년간 국내 비결핵항산균 환자의 지역별 발생률 추이 및 위험요인 분석8. 결핵균 특이 단백질 MPT64를 이용한 면역 진단키트 개발9. 항결핵 약제 phenotypic 및 genotypic 약제감수성 검사시 불일치 결과에 대한 분석10. 결핵균 배양검사 용 고체배지(2% Ogawa, Lowenstein-Jensen) 성장률 비교평가	100%



동일 환자로부터 시차를 두고 분리된 NTM 임상균주의 표현형 변화. 2개의 species의 각각 동정 후, 혼합감염으로 동정되는 경우(A)와 동일 species 이지만 colony morphology의 차이를 나타내는 subspecies간의 혼합감염(B)



정기후원신청서

함께 나누어요!!
결핵없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정기후원 신청서

 대한결핵협회
The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보내는 사람

□□□□□

요금수취인부담
서초우체국
제140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6길 57(우면동 14번지)
대한결핵협회 모금개발팀
TEL : 02-2085-0054~5
06763

소중한 당신의 후원금은 결핵퇴치기금으로 쓰여집니다.

국내외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

- 전국 결핵 고위험군, 도서 오벽지 취약계층, 기타 결핵 집단발병이 우려되는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시니어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한 복약지원사업

- 결핵에 걸린 어르신에게 복약을 지원하고 식료품 및 생필품을 제공합니다.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한 복약확인 뿐 아니라 약물 부작용관리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빠른 원치를 돋습니다.

결핵 및 후유증환자 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 결핵관련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결핵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재활,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다재내성 결핵환자 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 중 다재내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복약 및 치료 원치확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치료순응도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나의 후원내역과 후원금 확인,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www.knta.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www.knta.or.kr